**프리 철수 리 #03**

**한국 이민사 중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이철수 사건’ 다룬 다큐**

**<프리 철수 리> 9월 개봉 알리며 강렬한 메인 포스터 공개!**

한국 이민사에서 가장 센세이셔널했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철수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 리>(감독: 하줄리 Julie HA, 이성민 Eugene YI | 제작: 이철수다큐멘터리 유한책임회사 Chol Soo Lee Documentary LLC | 배급: 커넥트픽쳐스)가 오는 9월 개봉을 앞두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2건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 받은 21살의 한인 이민자 ‘철수 리’와 그를 구명하기 위해 인생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리 철수 리>는 주인공 이철수의 강렬한 모습이 담긴 메인 포스터를 통해 범상치 않은 다큐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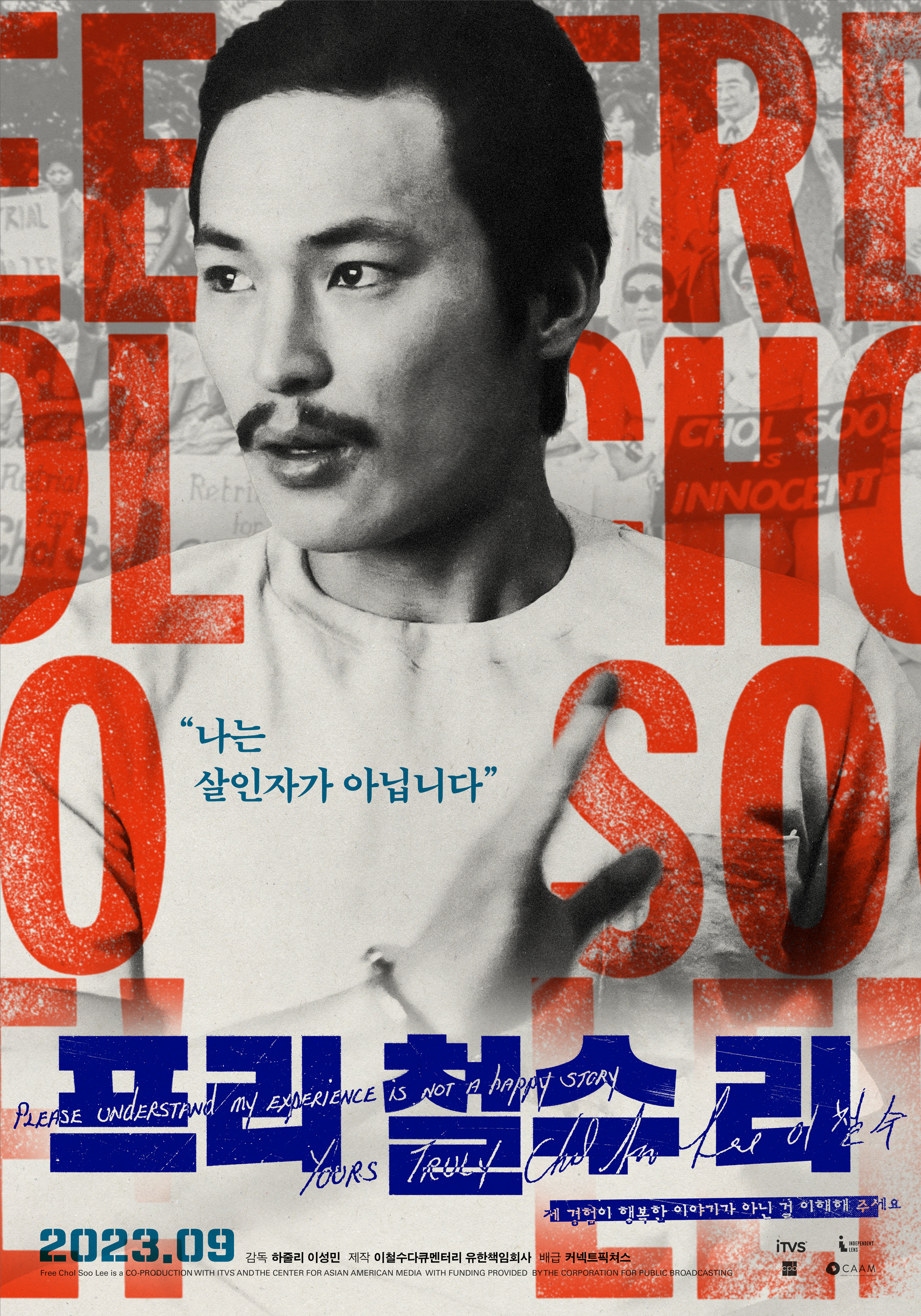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아시안아메리칸 사회를 뒤흔든 ‘이철수 사건’,**

**9월 개봉하는 <프리 철수 리> 통해 최초 공개!**

**선댄스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수 영화제가 먼저 인정한**

**저널리스트 출신 두 감독의 치밀한 아카이빙과 감각적인 연출,**

**이철수의 흑백 사진과 강렬한 원색의 타이틀 대비 강조한 메인 포스터에 고스란히 담겨!**



영화 <프리 철수 리>는 197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21살의 한인 이민자 이철수의 이야기를 다룬다. 동양인의 외모를 구별하지 못하는 백인 목격자들의 엉터리 증언으로 억울하게 가스실 행을 선고 받은 ‘이철수 사건’은 당시 미국 내 한인사회는 물론 아시안아메리칸 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프리 철수 리’ 구명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이민사의 가장 센세이셔널한 순간으로 손꼽히면서도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알려진 바 없는 ‘프리 철수 리’ 캠페인의 전모가, 저널리스트 출신 두 감독의 집요하면서도 끈질긴 노력을 통해 영화 <프리 철수 리>에 고스란히 담겼다.

9월 개봉을 앞두고 공개된 영화 <프리 철수 리> 메인 포스터는 ‘진짜 범인은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실제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을 만큼 수려한 외모를 지녔던 이철수의 강렬한 흑백 이미지와 원색의 타이틀이 또렷하게 대비돼, 영화의 감각적인 스타일을 짐작하게 한다. 여기에 억울한 누명으로 10년의 긴 세월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이철수의 심경이 담긴 말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를 간결하게 카피로 얹으며 영화에 대한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엎치락뒤치락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이어진 재판 과정을 숨가쁘게 따라가는 한편, 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거는 이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도 놓치지 않는 <프리 철수 리>는 선댄스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20여 개 영화제에 초청 및 수상하며 그 완성도를 먼저 인정받았다. 연출을 맡은 두 감독은 미국 내 아시안아메리칸 출판 잡지 중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가진 ‘코레암 저널’의 편집장 출신인 하줄리 감독과 뉴욕타임즈, 알자지라 등의 언론사 영상을 제작했던 이성민 감독. 두 감독은 저널리스트 출신답게 방대한 사건과 재판, 캠페인 기록을 꼼꼼하게 아카이빙하는 한편, 이철수라는 한 인물의 충격적인 삶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도 놓치지 않으며 결코 흔치 않은 결의 깊은 감동을 지닌 영화를 완성해냈다.

영화만큼이나 강렬한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모두의 인생 영화가 될 것을 예고하는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 리>(감독: 하줄리 Julie HA, 이성민 Eugene YI | 제작: 이철수다큐멘터리 유한책임회사 Chol Soo Lee Documentary LLC | 배급: 커넥트픽쳐스)는 오는 9월,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하줄리, 이성민 두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도 한국을 찾아 영화에 관한 다양한 비하인드를 직접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영화 정보**

* 제 목 프리 철수 리 Free Chol Soo Lee
* 감 독 하줄리 Julie HA, 이성민 Eugene YI
* 출 연 이철수 Cholsoo LEE, 이경원 K.W. LEE, 유재건 Jay YOO,

랑코 야마다 Ranko YAMADA, 제프 아다치 Jeff ADACHI,

세바스찬 윤 Sebastian YOON(내레이터) 외

* 프로듀서 김수현 Su KIM, 진 티엔 Jean TSIEN, 조소나 Sona JO,

하줄리 Julie HA, 이성민 Eugene YI

* 편 집 진 티엔 Jean TSIEN, 알도 벨라스코 Aldo VELASCO
* 음 악 그레첸 주드 Gretchen JUDE
* 촬 영 마이클 친 Michael CHIN, 제리 헨리 Jerry HENRY
* 제 작 이철수다큐멘터리 유한책임회사 Chol Soo Lee Documentary LLC
* 배 급 커넥트픽쳐스
* 장 르 다큐멘터리
* 러닝타임 86분
* 등 급 12세 이상 관람가
* 개 봉 2023년 9월 예정

**시놉시스**

**2건의 살인, 10년의 재판,**

**“정말로 난, 살인자가 아닙니다!”**

탕! 탕! 탕! 1973년 6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거리 한복판에서 중국인 갱단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다. 5일 후, 한 동양인 청년이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다. 이름 ‘철수 리’, 21살의 한인 이민자였다. 동양인 외모를 구별 못하는 백인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철수는 곧장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대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한 기자의 심층 보도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한인 최초의 미국 주류 신문사 기자였던 이경원은 차이나타운 취재 중 우연히 이철수 사건을 접하고, 엉터리 재판 과정을 폭로한다. 이철수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며 한인 이민 사회와 종교계가 들끓고, 재심을 요구하는 구명 운동이 시작된다. ‘프리 철수 리’ 운동이 아시안아메리칸 사회를 뒤흔들며 빠르게 번져가던 중, 교도소 안 이철수는 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다 진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10년의 재판,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철수 삶의 반전!

2023년, 모두의 기대를 배반하고 충격적인 감동을 선사할, 당신의 인생 영화가 될 최고의 다큐멘터리!

★**각종 문의는 커넥트픽쳐스(010-2795-75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